

8세기 일본과 신라의 공무역과 사무역에 대한 고찰

이 병 로*

〈국문요약〉

8세기 나라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속일본기』를 통해 신라와 일본 간에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교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국은 8세기 초기를 제외하고 정치·외교적인 대립관계를 가졌지만, 신라인들이 일본에서 교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8세기(나라시대) 양국의 교역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라시대 일본지배층은 신라와 발해를 번국(蕃國)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지배층이 율령법의 이념에 사로잡혀 관련기사를 윤색한 것이므로 신라지배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752년 김태림의 공적사절단은 일본보다 상위 국가의 예를 갖추어 일본과 외교를 진행하였다. 둘째, 신라지배층은 당나라로부터 배운 조공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73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공적사절단을 파견하여 공무역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752년 700여 명의 공적사절단으로 구성된 신라왕자 김태림의 방일이다. 셋째, 일본에서의 사무역은 신라상인들이 7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자이후에 건너오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768년에 일본지배층이 다자이후의 관리들을 이용하여 신라 교관물(무역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기사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넷째, 750년대 이후 신라인들이 다자이후로 끊임없이 건너오면서 유통시스템이 형성되었고 점차 신라상인들도 다자이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재일신라인’은 이후 ‘재당신라인’, 한반도 남해안의 해상세력 등과 함께 9세기 초기에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동아시아 교역권의 핵심 멤버를 이루게 된다. 8세기 중엽부터 사무역의 교역권이 다자이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9세기 초기에 장보고와 같은 국제적인 해상무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주제어: 통일신라시대, 나라시대, 한일교류사, 공무역, 사무역, 신라상인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일본학전공 교수 (brl688@kmu.ac.kr)

I. 머리말

8세기 동아시아의 국가는 당나라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이다. 이들 국가들은 8세기 초기, 당의 한반도 지배를 둘러싼 당과 신라의 대립, 그리고 발해의 건국을 둘러싼 당과 발해의 대립관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8세기 나라시대 당시의 한일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통일한 통일신라는 그 국력이 절정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 역시 701년 다이호(大寶)을 완성하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고대율령국가체제를 완성하였다. 8세기 초기는 신라가 당과 대립하였다. 일본 역시 '백촌강(白村江)의 전투²⁾로 당과 전투를 벌여 양국 간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당과 소원해진 통일신라와 일본은 서로 사절을 파견하며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통일신라가 당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자 양국 간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세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일환으로 동양사 전공의 관변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역사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연구하였다. 가장 좋은 사료가 일본의 기원에서 7세기까지의 일본 역사를 기록한 『일본서기(日本書紀)』³⁾의 대외관계 기사였다.

-
- 1) 律 6권, 令 11권으로 구성된 고대의 기본법이다. 당나라 영휘(永徽)을령을 모방하였으며, 다이호는 당시 연호이다. 다이호 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이호율령이라고 부른다.
 - 2) 663년 백제구원을 위해 파견된 일본군과 백제군은 백촌강 하구에서 당과 신라의 연합군과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이 결과 백제의 관리와 백성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왔다. 백촌강 하구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현재의 금강하구로 보고 있다.
 - 3) 원래 『니혼쇼키』라고 읽어야 하지만, 『일본서기』로 더 잘 알려져 있어 이하 『일본서기』로 표기한다.

일본의 신구(神功)황후가 신라를 정벌했다든가, 일본이 가야지방을 정벌하여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든가, 한반도 3국이 일본에 조공을 받쳤다는 기사들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메이지(明治)⁴⁾ 이후 일본인들은 왜곡된 역사교육을 배우게 됨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패전 이후 일본역사학계는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련 기사 중에 윤색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일본서기』에 대한 불신은 8세기의 일본 역사를 기록한 『속일본기(續日本紀)』⁵⁾의 한반도 관련 기사를 신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본고대사 연구자나 동양사 연구자들은 8세기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서기』와 같이 엄격한 사료비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가 '동이의 소제국'이란 논리를 제창한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이다.⁶⁾ 그는 고대 일본지배층이 당나라를 이웃나라(隣國)로 한반도 삼국을 반국(蕃國)으로 취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리는 일본역사학계의 대외관계사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일본역사 연구자들에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이시모다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정치·외교사적인 측면에서 8세기(나라시대)의 라일(羅日)관계⁷⁾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스즈키 야스타미(鈴木

4) 1868년부터 1912년까지 사용된 연호로서 우리에게 '메이지유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5) 『쇼쿠니혼키』라고 읽어야 하지만 『속일본기』로 더 잘 알려져 있어 이하 『속일본기』라 표기한다.

6) 石母田正(1973),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 『日本古代國家論』第1部, 東京:岩波書店, pp. 312-328에서 당은 대제국, 일본은 소제국으로 기술하고 있다.

7) 라일관계에 대한 논문은 일찍부터 일본측 연구자들이 연구해 왔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우월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국대학 교수들이 일본의 고대 문헌, 즉 『일본서기』와 『속일본기』 등에서 나오는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라일관계를

靖民)이다. 그는 신라가 당시 당과의 대립관계와 발해의 대두 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조공을 표면적으로 동조하였지만, 그것은 당시의 국제관계상 필요한 견제책·보전책이며, 정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제관계가 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7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라는 일본의 조공국인 것을 거부하여, 양국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779년에 이르러 신라는 공적 사절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⁸⁾

한편 8·9세기 양국 관계를 교역 측면에서 고찰한 자는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政敏)이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신라측은 외교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교역을 행하기 위해 공적사절을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사이후(大宰府)⁹⁾에 사적교역이 행해질 만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신라측은 공적사절을 파견하지 않아도 이들 민간상인이 교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사절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러나 8세기의 나라시대를 대상으로 한 일본학계의 학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논문이 일본측의 입장에서 정치·외교사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고대 라일관계의 전체상이 단순히 나라시대에는 정치·외교적인 관계이며 9세기 헤안(平安)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교역관계로 발전했다. 셋째, 752년의 김태렴(金泰廉)의 방일

고찰하였다.

반면 한국에서 라일관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일본 고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 몇 명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만 주로 7세기까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90년대 중엽에 장보고연구재단이 설립되면서 9세기에 활약한 장보고 관련 논문 중에서 8세기를 잠깐 언급하는 정도이다. 물론 신라측의 입장에서 라일관계사를 연구하려해도 사료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정치·외교적인 우위론에 맞서 신라측 입장에 선 논문들도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8) 鈴木靖民(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9) 고대 율령제도 아래에서 서해도(西海道), 즉 지금의 규슈 전역을 관할하던 지방행정기구를 말한다. 6세기 전반에 설치되어 제 2의 수도로 발전하였으나 13세기 말 원의 정벌 이후 쇠퇴하였다.
- 10) 石井政敏(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東京: 吉川弘文館, p. 303.

과 교역을 다룬 논문이 많다¹¹⁾. 넷째, 8세기 일본에서 이뤄진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성 시기 및 그 실태에 관해 고찰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필자는 위와 같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8세기 나라시대에 전개된 라일 간의 교역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특히 통일신라의 공적사절단이 일본에서 공무역을 언제부터 실시하였고, 그 배경과 실태는 무엇인가. 나아가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전환한 시기와 그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¹²⁾ 적어도 8세기 나라시대에 공무역을 대신하여 사무역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9세기 초기에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역권’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기

- 11) 김태림의 방일에 관한 『속일본기』의 기사는 매우 상세하다. 따라서 일본측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일본 측 논문은 東野治之(1977), 『鳥毛立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創院文書と木簡の研究』, 東京: 塙書房: 浜田耕作(1983), 『新羅中下代の内政と對日外交』, 『學習院史學』21: 李成市(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正倉院の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東京: 青木書店: 石井政敏(2001), 『天平勝寶四年の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渤海の對日外交目的の變化と關聯し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한국측 논문은 김은숙(1991),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29: 윤선태(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노게’(買新羅物解)-소소인(正倉院) 소장 ‘첩포기’(貼布記)의 해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24: 金昌錫(2004), 『8세기 신라·일본간 외교관계의 추이-752년 교역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184: 이병로·김용일(2006), 『752년 신라사 김태림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34: 강은영(2010), 『8세기 중후반 일본의 内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752년 金泰廉 使行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31 등이다. 최근 이들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발전시킨 논문이 발표되었다. 야마다 후미토(2020), 『8세기 중반 羅日關係의 推移와 金泰廉 使節團의 渡日』, 『大丘史學』138집.
- 12) 이병로(1996), 『8세기 일본의 외교와 교역: 라일관계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4輯, 日本歷史研究會에서 8세기 일본의 외교와 교역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8세기 양국의 외교’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역도 752년의 김태림의 방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8세기 신라와 일본의 무역 관계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8세기 나라시대의 교역에 초점을 맞추어 신라 공적사절단의 공무역과 공무역 이후의 사무역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때문이다.¹³⁾

II. 신라 공적사절단과 공무역

2장에서는 8세기 나라시대의 공무역이 언제쯤 성립되었고, 어떤 형태로 이뤄져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에서의 공무역은 주로 통일신라나 발해가 공적 사절단을 파견하여 교역을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의 공적 사절단이 언제부터 일본에서 공무역을 행사해 왔는가. 공무역을 실시했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통일신라가 파견한 공적사절단의 규모를 통해 공무역의 성립 시기를 먼저 추정해 보기로 한다.

『속일본기』에 기록된 통일신라 공적사절단의 횡수와 도착일자, 사절단의 숫자, 사절단의 인명과 특징 등을 정리한 것이 바로 <표 1>이다.

<표 1> 『속일본기』에 나타난 신라사절의 규모

횡수	도착일자	사절단수	사절단 인명	비고
1	697(효소왕 6). 10.28	미상	金弼德(大使) 金任想(副使)	
2	700(동 9). 11.8	미상	金所毛(大使) 金順慶(小使)	대후의 상을 알림. 김소모는 701년 정월 14일 사망함.
3	703(성덕왕 2). 1.9	미상	金福護 金孝元	효소왕의 상을 알림
4	705(동 4). 10.30	미상	金儒吉 金今吉	貢調
5	709(동 8). 3.4	미상	金信福	貢方物. 신라국왕에게 絹美濃緇糸綿을 보냄

13) 이병로(1993), 「九世紀初期における環シナ海貿易圏の考察-張保臯と對日交易を中心として-」, 『神戸大學史學年報』 8; 이병로(2004), 「일본측 사료로 본 9세기의 한일관계-신라인 來着 기사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25, 일본어문학연구회; 이병로(2004), 「신라의 '견일본사' 파견 증지에 관한 일고찰-나라시대 중·후기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59, 한국일본학회; 이병로(2011), 「해안 초기의 동아시아세계의 교섭과 현황-장보고와 엔닌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53집, 일본어문학회 등에서 9세기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이 동아시아 교역권을 형성하여 활동한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환중국해무역권'으로 개념화하였다.

6	714(동 13). 11.11	20여명	金元靜	大宰府의 綿 5450斤·매 1척을 받음
7	719(동 18). 5.7	40명	金長言	調物驛馬를 바침
8	721(동 20). 12.29	미상	金乾安(大使) 金弼(副使)	元明太上天皇의 죽음으로 大宰府로부터 방환(放還)을 당함
9	723(동 22). 8.8	15명	金貞宿(大使) 昔楊節(副使)	
10	726(동 25). 5.24	미상	金造近	貢調
11	732(동 31). 1.22	40명	金長孫	鸚鵡·鷓鴣·蜀狗·獵狗·驢·騾를 바침. 來朝의 年期를 奏請함
12	734(동 33). 12.6	미상	金相貞	국호를 王城國으로 바꾸어 사절 방환
13	738(효성왕 2). 경월	147명	金想純	大宰府로부터 방환 당함
14	742(경덕왕 1). 2.3	187명	金欽英	恭仁京의 미완성으로 大宰府에서 방환 당함
15	743(동 2). 3.6	미상	金序貞	調를 土毛로 개칭하여 筑前에서 방환
16	752(동 11). 3.22	700여명	王子 金泰廉 金暄(大使)	国政을 奏請함 貢調使. 일행인 金弼言은 送王子使임
17	760(동 19). 9.16	미상	金貞卷	輕使로 인해 추방당함. 來朝의 4원칙을 제시
18	763(동 22). 2.10	211명	金体信	방환당함
19	764(동 23). 7.19	91명	金才伯	승려인 融의 도착을 물음
20	769(해공왕 5). 11.12.	187명	金初正	재당대사 藤原河清의 편지를 전함. 土毛를 바침. 신라국왕에게 純糸綿을 보냄
21	774(동 10). 3.4	235명	金三玄	藤原河清의 편지를 보냄. 貢調를 国信物로 칭하여 방환 당함
22	779(동 15). 10.9	미상	金蘭蓀(大使) 金巖(副使)	遣唐判官인 海上三狩 등을 인솔하여 大宰府로부터 입경함

자료: 鈴木靖民(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견신라사 표 참조 재구성

〈표 1〉의 사절단의 규모를 살펴보면, 5차 김신복의 사절단까지는 몇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일본에 건너왔는지 알 수 없다. 나라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10년대부터 사절단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714년의 6차 사절단을 이끌고 온 김원정이 20여명의 규모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1차에서 5차까지의 사절단도 소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719년의 7차 공적사절단을 인솔해 온 김장언은 40명이다. 공적사절단의 규모를 알 수 있는 714년의 6차 김원정부터 732년의 11차의 김장손까지는 많을 경우 40명이며, 적을 경우가 9차의 15명이다. 따라서 8세기 초기, 즉 732년까지 신라의 공적사절단은 대략 40명 이내의 규모로 편성되어 일본에 건너온 사실을 알 수 있다.

732년의 11차 공적사절단을 인솔해 온 김장손은 이전의 사절단이 다자이

후(大宰府)에서 방환을 당하던 것과는 달리 나라의 수도인 혜조쿄(平城京)까지 입경하고 있다. 이어서 734년의 12차 공적사절단을 이끌고 온 김상정은 정확한 사절단의 숫자를 알 수 없으며, 국호를 ‘왕성국’¹⁴⁾이라 바꾸었다고 하여 공적사절단이 또다시 방환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¹⁵⁾

그러나 738년의 13차 공적사절단을 인솔해 온 김상순은 비록 다자이후에서 방환을 당했지만 사절단의 규모가 147명이란 대규모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많아야 40명이었지만 이때부터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어서 742년의 14차 공적사절단을 이끌고 온 김흠영도 다자이후에서 방환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187명이었다. 그 다음 해인 743년에는 김서정이 조(調)를 토모(土毛)¹⁶⁾로 개칭하였다고 규슈에서 방환을 당했다. 그 규모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이전의 공적사절단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대략 200명에 가까운 사절단 규모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752년의 16차 김태렴은 가왕자란 신분을 가지고 700여명에 달하는 대규

-
- 14) “왕성국은 왕이 거주하는 성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며, 당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후왕의 존재를 강조한 표현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일본에 대해 자국이 왕성국임을 표방하여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우위성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야마다 후미토(2017), 「新羅 聖德王代の 對日關係와 ‘王城國」, 『韓國古代史研究』 87집, 314-315쪽.
- 15) 신라의 왕성국 국호 변경에 대해 일본측 연구자들은 통일신라가 735년 발해와 당의 대립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하여 당의 신임을 얻게 되자 그걸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 대등한 관계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지배층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며, 실제로 신라는 이전부터 일본을 오히려 일본을 하위에 두려고 했다. 따라서 『속일본기』의 신라 관계기사는 사료 비판이 절실히 필요하다.
- 16) 여기서 ‘토모(土毛)’는 신라 땅에서 산출된 토산물을 말한다. 이 기사를 두고 일본측 연구자들은 신라가 ‘조(調)’를 토모로 고쳐 말했기 때문에 방환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石母田正(1989), 『古代國家論』, 岩波書店, p.31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야마다 후미토는 신라 사신이 ‘조(調)’를 고쳐 ‘토모’로 칭한 것이 아니라 일본 조정이 신라 사신으로부터 전달된 물품을 토모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본 조정은 신라 사신이 가져온 물품이 공납물이 아닌 신라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절단을 방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야마다 후미토(2020), 「8세기 중반 羅日關係의 推移와 金泰廉 使節團의 渡日」, 『大丘史學』 138집, 15-18쪽.

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건너왔다. 나라의 해조쿄(平城京)에 입경한 숫자 만도 370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공적사절단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일 양국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760년 17차 김정권의 공적사절단은 방환을 당해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763년 김체신의 18차 사절단은 비록 방환을 당했지만 211명의 대규모 공적사절단의 규모였다. 다음 해인 764년은 김재백이 이끄는 19차 공적사절단이 건너왔으나 91명의 소규모였다. 그 사절단의 목적 등에 관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전년에 211명이나 건너온 것으로 보아 이전 공적사절단과는 다른 임무로 파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769년 김초정이 이끌고 온 20차 공적사절단은 187명의 규모이고, 마지막 공적사절단인 22차 김난손의 경우는 235명의 대규모 사절단이었다.

이와 같이 신라의 공적사절단의 규모가 732년까지 40명 수준이었다가 이후 200명에 가까운 사절단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적사절단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정식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공적사절단은 다자이후 등에서 어떤 임무를 띠고 있었는가. 신라의 공적사절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므로 견당사 예를 참고로 하여 신라 공적사절단의 구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기로 한다.

견당사의 규모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견당사의 규모

차수	연도. 월	인원 수	선박 수	항로	비고
1차	630. 8.		1	북로	唐使 高表仁과 신라 送使가 동행
2차	653. 5.	121	1	남로	입당 항해 중 사쓰마(薩摩)에서 조난
3차	654. 2.		2	북로	
4차	659. 7.		2	북로	귀국 중 남해의 섬에 표착
5차	665.1 2.			북로	唐使 劉德高 등을 귀국시키기 위한 사절
6차	669. 8.				唐使 司馬法聰을 귀국시키기 위한 사절

7차	702. 6.			남로	대사는 8차 견당사와 귀국
8차	717. 3.	557	4 ?		
9차	733. 4.	594	4		3선과 4선 조난
10차	752. 3.	220	4	남로	1선은 安南(베트남)에 표착
11차	759. 2.	99	1	발해로	
12차	761. 5.		4		선박 파선으로 중지
13차	762. 6.		2		선박 항해에 필요한 바람을 못 얻어 중지
14차	777. 6.		4	남로	귀국 항해 중 제 1선 난파
15차	779. 5.		2	남로	唐使 孫興進을 귀국시키는 사절
16차	804. 7.		4	남로	입당 항해 중 제 3선 조난
17차	838. 7.	651	4	남로	입당 항해 중 제 3선 조난 140명 익사
18차	894.8.				중지

자료: 木宮泰彦(1987), 『日華文化交流史』, 東京: 富山房, pp. 123-127 표 참조 재구성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견당사가 처음 파견된 것은 630년 조메이(舒明)천황 2년 때이며, 사절단의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653년의 2회 견당사의 규모는 대사와 부사를 비롯한 121명임을 알 수 있다. 이후 710년 부터 시작되는 나라시대에 이르면 견당사의 규모는 4척의 견당사 선박을 이용하여 대략 5-600여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견당사의 파견에 있어서 일본조정이 임명하는 대사 및 부사 등 고위직의 관리 이름과 전체 인원, 그리고 항로 정도만 일본측 사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견당사의 전체 규모를 비롯하여 견당사가 당에 건너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다행히 838년의 17차 견당사 때, 엔닌(円仁)은 청익승(請益僧)¹⁷⁾의 신분으로 당에 건너가서 8년 가까이 유학생할

17) ‘청익’의 일반적인 뜻은 모르는 점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청익생(단기유학생)과 청익승(단기유학승)이 있다. 견당사를 수행하여 학문 및 교의와 경전 등의 의문점을 당의 학자나 승려에게 배워 견당사와 함께 귀국해야 한다. 반대로 당의 체류지원을 받아 당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유학생(장기유학생)과 유학승(장기유학승)과는 구별되었다. 國史大辭典編纂委員會編(1986),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엔닌은 청익승, 즉 단기유학승의 신분이라 당 황제의 허가를 얻어 장기유학승의 신분을 얻고자 했으나 허가

을 하면서 겪은 내용을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일기로 남겨 놓았다. 엔닌은 자신의 유학생생활을 비롯하여 견당사의 활동 상황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비록 9세기 초기의 공적 사절단의 모습을 알려 주는 사례이지만, 8세기의 신라사절단의 구성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엔닌의 일기에 의하면, 600여명¹⁸⁾의 17차 견당사 일행 중에 실제로 수도 장안에 올라간 인원은 극소수였다. “입경하는 관인은 대사 1명(藤原常嗣), 나가미네(長岑高名) 판관(判官), 수가와라(菅原善主) 판관, 다카오카(高岳百興) 녹사(錄事)¹⁹⁾, 오미와(大神宗雄) 녹사, 오야케(大宅年雄) 통사, 특별 청익생 도모노 수가오(伴須賀雄), 진언종 청익승에다 각종 직책의 관리자 등 35명이며, 관선은 5척이다.”²⁰⁾ 그러나 실제 장안에 들어가 천제를 알현하러 대궐에 들어간 사람은 25명이었다.²¹⁾ 엔닌의 기사를 통해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입경한 인원은 3-4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17차 견당사 이전의 입경 사절단 숫자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7차 견당사와 대동소이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17차 견당사의 경우, 정치·외교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3-4명의 외교사절단 외에도 500여명의 공적사절단이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를 얻지 못해 불법 체류의 방법을 택한다. 그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 머물며 당의 정식 비자를 얻었을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당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면에서 장보고를 비롯한 많은 신라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18) 전체 인원은 651명이었으나 당나라로 건너가는 도중 배 1척이 난파를 당하는 바람에 140여명이 익사하였다. 실제 당나라로 건너간 견당사 인원은 500여명이다. 森克己(1985), 『遣唐使』, 東京: 至文堂, p. 27.
- 19) 견당사는 대사·부사·판관·녹사의 4등관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녹사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다. 木宮泰彦(1987), 『日華文化交流史』, 東京: 富山房, pp. 85-86.
- 20)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1권, 838년 10월 4일 조.
- 21)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1권, 839년 2월 27일 조에 의하면 “관인들은 장안에 머무는 날부터 병을 얻어 몹시 고생하였다. 그래서 지난달 13일에 대궐에 들어간 사람은 25명이고, 녹사는 수행할 수 없었다”란 기사를 볼 수 있다.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는가. 견당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하급관리는 물론이고 통역사, 선박관리자, 유학생, 화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기능공들이 많이 참가하여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담당하였다. 승려들은 당나라의 절을 방문하여 불경이나 불화를 수집하거나 불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화가들은 불화나 불상을 그렸다²²⁾. 또한 하급 관리들은 당나라 시장에서 필요한 사적인 교역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귀한 향료를 사다가 당나라 관리에게 적발되어 구류를 당하기도 하였다.²³⁾ 견당사에 포함된 하급관리들이 당에서 향료를 비롯한 고가의 사치품을 비롯하여 교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7차 견당사의 입경 사절단 규모를 살펴보았으나 8세기 나라시대의 신라 입경 사절단의 숫자도 견당사의 경우와 비슷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8세기 나라시대 초기, 즉 732년까지는 수도에 입경할 수 있는 공적인 임무를 띤 최소한의 사절단인 40명 이내가 파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본 신라의 공적사절단 숫자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 공적사절단의 경우는 일본에게 오히려 문화를 전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적사절단 중에 견당사와 같이 당의 선진문물이나 문화를 전수받기 위한 업무 담당의 중·하급관리나 기술자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대신에 교역 담당의 중·하급관리는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파견된 147명이나 187명의 공적사절단 중에는 정치·외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약 40명과 배를 운항하는 선원을 제외하면 적어도 70-100여명 정도는 주로 교역을 위한 중·하급관리나 상인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다자이후에서 공무역이나 사무역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적 사절단의 공무역 사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752년의 김태림 방일이다. 이 때 사절단 규모가 700여명으로 이전보다 4배에 달하고 있

22)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1권, 838년 12월 9일조, 839년 정월 3일 조 등. 불경의 필사본을 가져와 다시 일본에서 필사하여 전국의 각 사찰에 배부하였다.

23)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1권, 839년 2월 20일 조, 동 2월 21일 조, 2월 22일 조. 물건을 사다가 체포되어 구금까지 되었는데, 어떤 물품을 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으며, 수도인 해조쿄에 입경한 사절단 숫자만 해도 370여명에 달했다. 김태림의 방일 사절단 규모가 크게 불어난 이유는 그 해 완성된 도다이지(東大寺)대불과 다이안지(大安寺) 참배²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²⁵⁾

752년의 김태림 공적사절단이 행한 공무역의 실태는 선행 논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정창원(正倉院)²⁶⁾ 문서 중에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라는 문서가 있다. 이것은 일본의 황족이나 귀족들이 김태림의 공적사절단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 품목과 가치를 적어 해당 관청에 제출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향료·약물·채색료·안료 등과 같이 소량으로 고가인 제품이나 사치품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의 상업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24) 『續日本紀』天平勝寶 4(752)年 6月 22日 條에 의하면 “태림 등이 다이안지(大安寺)와 도다이지(東大寺)에 나아가 예불을 드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김태림이 먼저 다이안지를 참배한 이유는 그 절의 주지가 바로 다년간 신라에 유학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전파한 심상이기 때문이다. 당시 승려는 지식층이며 상류층이라 아마도 심상은 신라에서 김태림 등의 귀족층과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먼저 다이안지를 방문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도다이지의 로사나대불의 참배는 신라 왕자 김태림과 그 일행들의 가장 중요한 방일 목적이며 최대의 의례였다고 생각한다. 도다이지 대불을 완성시킨 기술자들은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출신의 후예들이었다. 그리고 도다이지는 신라의 의상과 원효 등에게 배운 화엄종의 교리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당시 신라는 불법흥륭(佛法興隆)이 피크에 달한 시기다. 따라서 동양 최대의 대불은 신라 귀족들과 신라 불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700여명의 대형 순례단을 파견하였다고 생각한다. 田村円澄(1990), 『大宰府探求』, 東京: 吉川弘文館, pp. 169-172.

25) 이병로·김용일(2006), 「752년 신라사 김태림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日本語文學』 34에서 김태림의 방일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26) 현재 도다이지 안에 있는 정창원 보물창고를 말한다. 나라시대 도다이지에 세워진 세 칸 한 동으로 된 건물이다. 여기에 전래된 물건들이 정창원 보물이며, 쇼무(聖武)천황이 죽은 후 그의 부인인 고묘(光明)황후가 도다이지에 헌납한 유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에 국제색이 풍부한 물건들이 많고 신라에서 건너간 물건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정창원 보물창고에 전래된 나라시대의 문서를 정창원문서라고 한다.

27) 東野治之(1977), 「正倉院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東京: 塙書房, pp. 353 - 355.

나이가 라일 간의 교역은 신라가 당과 교역을 통해 얻은 물품을 일본에 판매하는 중계무역이란 점이다. 신라는 일찍부터 당과 책봉관계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받아 민간무역을 발전하였다.²⁸⁾ 이것은 당과의 진공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8세기 이전의 진공품은 금·은·동·인삼 등 원료품이 중심이었지만 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금은세공품·모직물·견직물 등 정교한 공예품이 많아지게 된다.²⁹⁾ 3장에서 후술하듯이, 신라가 사무역을 통해 일본의 다자이후로부터 받은 면이 신라에서 가공되어 당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또한 벼루를 비롯한 향로, 놋그릇과 수저 등의 금속제품, 인삼 등 신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등의 제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라인들이 일본에 건너와 중계무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최근 김태림의 방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야마다 후미토(山田章人)는 김태림의 공적사절단 중 입조한 370여 명은 도다이시 대불에 필요한 불교 관련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입조하지 않았던 나머지 약 330여 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이라고 주장하였다.³⁰⁾ 그렇다면 김태림의 공적사절단은 공무역과 사무역을 겸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신라 공적사절단은 730년대 중엽부터 공무역을 전개하였으며, 정창원 보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량이며 고가의 물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중계무역을 실시하였다. 나이가 신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도 일본에 가져와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 松本新八郎(1961), 「東アジア史上の日本と朝鮮」, 『世界歴史』 6, 東京: 築摩書房, pp. 281-284.

29) 『삼국사기』 문무왕 12(673)년 9월 조, 동 해공왕 9(773)년 4월 조에 의하면,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신라의 진공품이 정교한 공예품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0) 야마다 후미토(2020), 「8세기 중반 羅日關係의 推移와 金泰廉 使節團의 渡日」, 『大丘史學』 138집, 33-34쪽.

다음 장에서는 공적사절단에 의한 공무역이 언제부터 사무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배경 및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사무역의 형성 시기와 실태

2장에서는 통일신라가 파견한 공적사절단의 규모를 고찰하여 언제부터 공무역을 실시하였고, 그 실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공적사절단의 공무역을 대신하여 신라인들의 사무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실태는 어떠한가. 신라상인들이 일본에서 사무역을 실시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사무역이라 『속일본기』 등의 공식적인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의 관리들이 공적사절단이 아닌 루트를 통해 신라에서 건너온 무역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했다는 기록은 일본측에 남아 있다. 이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무역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대로 752년의 김태렴의 방일 때, 입조하지 않은 330여 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내용은 바로 사무역의 일단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공적사절단과의 공무역이 아닌 사무역의 실태를 가장 잘 말해주는 사료는 『續日本紀』神護景雲 2(768)년 10월 24일 조이다. 여기서 일본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던 황족과 최고위급의 귀족들이 신라의 ‘교관물’을 사기 위해 다자이후(大宰府)가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면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左右大臣에게 大宰府의 綿을 각각 二万屯, 大納言의 諱와 弓削御淨朝臣 清인에게 각각 一 万屯, 從二位의 文室真人淨三에게 六千屯, 中務卿·從三位의 文室眞人大市와 式部卿·從三位의 石上朝臣宅嗣에게 四千屯, 正四位下の伊福部女王에게 千屯을 하사하였다. 新羅의 交關物을 사기 위해서이다.

이어서 나오는 30일 조의 “二品の 이노우에(井上)內親王에게 다자이후의 면 1만둔을 하사했다”란 기사도 위의 24일 조의 기사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당시의 좌·우대신은 후지와라노 이손 나가테(藤原朝臣永手)와 기비

노 아손 마키비(吉備朝臣眞備)이다. 또한 다이나곤(大納言)을 맡고 있던 자는 후에 고닌(光仁)천황으로 등극한 시라카베(白壁)왕³¹⁾이었다. 그 외에도 중무경과 식부경 등 당시의 최고위급 관리인 장관급들과 황실의 최대 실력자인 시라카베왕을 비롯하여 이노우에(井上)내친왕 등 당시 나라시대의 최상위 귀족층들이 신라의 교관물을 사기 위해 8만 둔(屯)³²⁾에 달하는 다자이후의 면을 지급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 귀족들이 다자이후를 직접 방문하여 사무역을 행한 것이 아닐 것이다. 자신의 부하 관리들을 다자이후에 파견하여 그곳 관리들과 같이 신라에서 건너온 신라인, 즉 신라상인들과 교역을 행사했을 것이다. 750년대 김태림 이후 양국은 외교적인 분쟁 때문에 신라사절은 수도로 입경하지 못하고 다자이후에서 방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에 투자하는 비용이 다량인 것으로 보아 일본지배층이 신라무역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는 위의 기사에 주목하여 “신라와의 무역은 신라사절단의 상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수년에 한번 밖에 신라사절이 파견되지 않았으므로 무역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의 무역이 가능한 것은 다자이후 등에 신라상인이 꽤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이것을 조정도 공공연한 비밀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³³⁾

이노우에의 주장대로 다자이후에 신라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여 교역을 담당했다면, 그들 중에 다자이후에 정착하는 신라상인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730년대 후반부터 공적사절단의 공무역을 중개하였고, 752년의 김태림 방일 때 입조하지 않은 330여 명과 일본 귀족들과의 사무역을 담당

31) 시라카베(白壁)왕이 고닌(光仁)천황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大納言의 휘(諱)’로 표현하였다. 고닌천황의 아들이 헤안(平安)시대를 연 간무(桓武)천황이며, 그의 어머니가 백제계 이주민 후손인 다카노노 니이가사(高野新笠)이다.

32) 둔(屯)은 면의 중량을 재는 단위. 중국에서는 6兩, 일본에서는 2斤을 1둔으로 한다. 小泉袞裳承 編著(1989), 『圖解 單位歷史の辭典』, 東京: 柏書房, p. 198.

33) 井上秀雄(1969), 「三國文化の影響」, 『日本と朝鮮の二千年』, 東京: 太平出版社, p. 78.

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752년 김태렴 방일은 공무역과 사무역이 양립하는 사건이었다. 김태렴의 방일 이후 양국 관계의 정치·외교관계는 점차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 교역이 쌍방의 관심사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위의 768년의 사료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결국 라이앙국의 외교는 겉으로는 외교형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뒤편으로는 5위(五位) 이상의 일본 귀족층이 신라상인과 교역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라의 교관물을 사기 위해 지급된 이 다자이후의 면(綿)은 739(天平 원)년 이전부터 매년 10만 둔(屯)을 수도인 헤조쿄(平城京)로 보내었으나, 신라와의 교역이 있던 다음 해(769년)에는 20만 둔(屯)으로 증액되어 있다. 이것도 전년에 신라 교관물을 사기 위해 다자이후의 면을 지급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³⁴⁾ 이렇게 수도에 보내는 액수와 거의 같은 규모의 무역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일본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던 황족이나 귀족들이 신라 혹은 당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서 신라와의 교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계층은 다자이후(大宰府)의 관리들이며 또한 규슈의 지역세력자였다고 추정된다.³⁵⁾ 단순히 신라사절과의 공무역만으로는 다자이후에서 이뤄지는 거대한 규모와 교역질서를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자이후에서 이런 교역질서를 담당해 왔던 수많은 신라인들이 언제부터 다자이후로 건너오게 된 것일까. 그것을 잘 말해주는 사료로서 『續

34) 倉住靖彦(1977), 「大宰府-遠の朝廷」, 『古代の地方史』1, 西海編, 東京: 朝倉書店, p. 263. 또한 倉住靖彦(1987), 「大宰府の成立」, 古代を考えるシリーズ 『大宰府』, 東京: 吉川弘文館, p. 66에서 이 당시 다자이후의 면은 매우 품질이 뛰어나 국가재정에도 중시되었다고 하였다.

35) 『類聚三代格』 天長 8(831)年 9月 7日의 太政官 官符에 의하면 백성과 王臣家들이 신라의 교관물을 사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있으므로 사교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비록 이 관부는 9세기 초의 것이지만 이런 현상이 이미 8세기 중엽부터 다자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9세기 일본의 공권력이 추락함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병로(2005), 「장보고와 훈야노 미야다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 『大丘史學』 79집, 10-11쪽.

日本紀』天平寶字 3(759)년 9월 4일 조를 들 수 있다.

천황은 다자이후(大宰府)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근년에 신라인들이 귀화를 바라고 來日하는 배가 끊이질 않는다. 그들은 조세나 노역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있다. 그 심증을 헤아린다면 어찌하여 (그들이) 고향을 생각지 않을 것일까. 그들을 재삼 심문하여 귀국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식량을 주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라.

위의 기사에서 750년대의 경덕왕 말기 무렵부터 많은 신라인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천황은 이들이 ‘귀화’를 바라고 규슈의 다자이후에 건너왔다고 하며, 귀국을 원하는 신라인들에게 식량을 주어 귀국토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귀화를 위해 다자이후에 건너왔다는 기사는 신라를 하위에 두려는 일본지배층의 우월의식에 입각한 표현이다. 당시 최전성기의 경덕왕 치세에 많은 신라인들이 일본에 귀화하기 위해 건너왔다고 하는 기사는 신라인의 입국 목적을 윤색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년 후의 내용이긴 하나 다음에 인용하는 774년의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 『續日本紀』寶龜 5(774)년 5월 17일 조

천황은 다자이후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근년 신라인들이 빈번하게 來着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대부분은 投化가 아니라 갑자기 풍랑을 만나 표착하여 돌아가질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일본의 인민이 된 것이다. 이 후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모두 송환하여 천황의 관대한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라. 만약 배가 부서지고 식량이 없으면 役所가 사태를 수습하여 귀국의 계획을 세워주도록 하라.

B. 『類聚三代格』寶龜 5(774)년 5월 17일의 太政官符

大宰府는 流來해 오는 신라인을 放還할 것
(전략) 신라인들이 때때로 流着해오는 경우가 있으나, 때로는 귀화이며 때로는 流來이다. 다만 이 流來는 그 본의가 아니다. 따라서 인도적인 측면

에서 放還하도록 하라. 만약 배가 파손되거나 식량이 없으면 배를 수리해 주고 식량을 주어 보내도록 하라. 다만 귀화를 원하는 자는 이전과 같이 신고하도록 하라.

사료 A와 B는 같은 내용의 기사이다. 774년의 『속일본기』의 기사인 A를 기반으로 하여 태정관이 다자이후에 관부를 내린 것이 B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위의 두 기사를 통해 759년 『속일본기』 9월 4일 조에서 귀국을 원하는 신라인은 돌려보내라고 했으나 여전히 많은 신라인들이 다자이후로 건너오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다자이후에 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59년의 기사에서는 신라인들이 ‘귀화’를 위해 다자이후에 건너왔다고 했으나, 사료 A에서는 ‘투화(投化)’, 즉 귀화를 위해 건너온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 다자이후에 건너와 머물다가 일본인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759년의 기사에서는 다자이후에 건너온 신라인을 ‘귀화자’로 표현했지만 실상은 풍랑 등으로 다자이후에 건너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 A의 774년 『속일본기』 기사는 모두 풍랑으로 다자이후에 건너 와서 거주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 B의 774년의 太政官符에서는 ‘귀화’나 ‘유래’의 두 종류로 다자이후에 건너왔다고 구별하고 있다. 특히 “유래는 그 본의가 아니다”란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풍랑에 떠내려 왔다는 것이지만, 그들은 귀국하지 않았다. 신라인들이 처음부터 교역을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나 다자이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세기 초기에는 신라상이 규슈지역에 표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768년의 일본지배층의 교역활동을 상기해 보면, 당시 신라의 공격사절단이 파견되지 않아 공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자이후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교역과 통역업무에 종사하던 이들 신라상인들이 일본지배층과 교역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엔닌의 일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838년에 견당사가 파견되었을 때

다자이후 관내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인 김정남, 박정장, 도현 등이 통역으로 참가하였고, 그 외 신라선원들이 견당사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엔닌이 사적인 일기에 상세한 내용을 기술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이전부터 많은 신라인들이 교역을 위해 건너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섭이 9세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8세기부터 신라인이 점차 증가하여 교역을 실시하고 나아가 재당신라인과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다자이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8세기 중엽에는 이미 많은 신라인들이 다자이후에 건너와 머물면서 동아시아 삼국간의 교역을 위해 활약하였다고 생각된다.³⁶⁾

이와 같이 730년대부터 라일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대규모 공적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 배경에는 다자이후와 수도를 중심으로 한 교역이 주목적이었다. 그렇다면 그 요인을 신라에서 찾아보기로 보기로 한다.

한반도를 지배하려던 당과 신라는 한때 전쟁까지 벌였지만, 702년에 성덕왕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의 치세(702-736)만 해도 45회의 조공사가 파견되었다. 이 회수는 신라의 왕권 신장과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통일신라 이후에 들어서면 대당조공의 성격이 문화적·경제적인 면으로 변화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공제도의 실질적 목적은 주변국가가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입하여 왕족·귀족의 정치적 지위의 보장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의 독점에 있었다.³⁷⁾

이러한 조공제도 아래서의 무역은 사절단의 왕래에 의한 공적인 무역이었으나 사절 중에는 개인적으로 사무역을 행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다. 가령 외교사절을 통한 사무역의 예는 당의 사신인 歸崇敬이다³⁸⁾. 그는 768년에 혜공왕 책립을 위해 신라에 파견되었을 때 사무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36) 9세기에 일본열도에서 활약한 신라인들에 대해서는 이병로(1996), 「고대일본열도의 '신라상인'에 대한 고찰」, 『日本學』 1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참조.

37) 김상기(1948), 「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서울: 을유문화사, 3-7쪽.

38) 『舊唐書』卷 一四九, 「歸崇敬傳」.

덕을 칭송받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시의 공적사절이 개인적으로 사무역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당의 사신이 사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익숙해진 신라의 사절이 반대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같은 상행위를 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752년의 김태렴의 경우는 대사급의 사절에 특례로서 인정된 공무역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그 외 수행하던 중하급 관리도 아마 개인적인 교역을 실시했다고 보여진다. 정창원(正倉院)에 남아있는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에 구입 대상 물품들은 그들이 사적으로 도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사무역이 이뤄진 또 하나의 요인은 당시 신라의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는 점이다. 『三國遺事』1권 紀異, 辰韓조에 의하면, 신라 전성시대에 서울에 17만 여호와 35개의 부유한 큰집인 금입택(金入宅)이 있었고, 39개의 저택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39개의 ‘택(宅)’이란 “왕도인 경주의 유력귀족(소위 진골귀족)의 가택이며, 그들은 각각 자기가 관할하는 공방에서 유능한 사적인 장인을 소유하여 여러 가지 제품의 제조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말해진다.⁴⁰⁾

이런 공방에서 제조된 물품들은 다량으로 일본에 건너왔으며,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앞서 언급한 정창원 보물이다. 이 중에서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과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이란 명문이 새겨진 배 모양의 벼루(墨)는 일부러 ‘新羅’라는 국명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대외교역용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라의 최전성기라고 부르는 성덕왕대부터 대당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신라의 진골귀족들은 자신의 공방에서 대외교역품을 많이 생산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752년의 김태렴이 가져온 물품은 사절과 함께 방일했다고 추측되는 다수의 교역담당자가 각각 자신이 속한 귀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⁴¹⁾ 특히 ‘상묵

39) 石井政敏(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東京: 吉川弘文館, pp. 280-281.

40) 李成市(1982), 「正倉院寶物氈貼布記を通じて見た八世紀の日羅關係」, 『朝鮮史研究會會報』 67號, p. 10.

41) 東野治之(1977), 「正倉院氈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東京: 塙書房, pp. 353 - 355.

(上墨)으로 새긴 것은 그만큼 최상급 물품이란 자부심을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 교역의 담당자들은 동시에 중·하급관리를 겸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도 나가 무역활동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신라공적사절단의 대신하여 신라인들이 사적인 교역을 실시한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의 사무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언급한 한일 양국의 고대 사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은 곤란하나 김상기는 신라의 삼국통일 후 산업의 발달 등을 들어, 신라사절의 사적인 교역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그러나 김상기의 ‘통일신라 이후’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750년대 이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성덕왕 때의 45회에 걸쳐 이뤄진 활발한 조공무역, 그것을 근거로 당과의 중계무역 실시, 신라중기의 경제발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성덕왕 시대에 10회에 걸쳐 신라가 공적사절단을 파견한 것도 중계무역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일본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던 황족과 귀족 층들이 당시 유행하던 사치품과 신라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수요도 큰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시대에 이루어진 무역형태는 730년대부터 신라 공적사절단의 공무역으로 시작하여 사절단 수행원들의 사무역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750년대부터 신라상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사무역 형태로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신라인들의 상업 활동의 근거지가 된 다자이후(大宰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다자이후는 6세기 초기에 이미 성립되어 일찍부터 중국과 한반도의 대외교섭의 창구로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8세기 나라시대에는 주로 신라와의 대외교섭을 담당하였고, 제 2의 수도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신라인들이 다자이후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들과 다자이후의 관리들은 자연스럽게 교류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8세기 중반부터 신라상인들이 대일무역을 전개하려는 상황을 다자이후의 관

42) 김상기(1987), 「조공의 경제적 의의」, 『고대한중관계사의 연구』 한국사연구회 편, 서울: 삼지원, 48-52쪽.

리들이나 호족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신라의 공적사절단이 단절되자 그들이 직접 신라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고 생각된다. 9세기 초의 『三國史記』 애장왕 시대 초기에 많이 나오는 일본사절의 기사이다.

애장왕 4(803)년 가을 7월에 일본과 서로 사절을 교환하여 예방하고 우호를 맺었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동 5(804)년 여름 5월에는 일본이 사절을 파견하여 황금 300냥을 바쳤다고 한다. 또한 동왕 7(806)년 봄 3월에는 일본의 사절이 왔으므로 조원전에서 접견하였다는 기사, 동왕 9(808)년 봄 2월에는 일본에서 사절이 와서 왕이 후히 대접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들 기사들은 일본측의 대응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 왔다. 여기에 보이는 일본사절은 중앙에서 파견된 사절로 보기보다 오히려 다자이후가 교역의 임무를 띤 사적인 사절로서 다자이후의 관리를 파견하였던가, 아니면 호족층 등이 일본의 사절을 사칭하여 파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³⁾ 그렇다면 804년의 일본국 사절이 황금 300냥을 진상했다는 기사는 다자이후측이 교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라에 바친 진상품이며, 그 교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자이후의 중하급관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8세기 나라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속일본기』를 통해 신라와 일본 간에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교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교류는 대부분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일방적인 형태였다. 양국은 8세기 초기에 잠시 대외적인 요인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730년대부터 대외적인 요인이 사라지자 서로의 공적사절단을 돌려보내는 등, 정치·외교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신라인들이 일본에

43) 遠藤元男(1975), 「貞觀期の日羅關係について」, 『駿大史學』 19號, p. 11; 森克己(1975), 「慈覺大師と新羅人」, 『續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pp. 180-181.

서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일본지배층인 황족과 귀족들이 신라의 교관물(무역품)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8세기(나라시대) 양국의 교역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라시대 일본지배층은 신라와 발해를 번국(蕃國)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지배층이 율령법의 이념에 사로잡혀 관련기사를 윤색한 것이므로 신라지배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752년의 김태림의 공적사절단은 일본보다 상위 국가로서의 예를 갖추어 일본과 외교를 진행하였다. 둘째, 신라지배층은 당나라로부터 배운 조공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73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공적사절단을 파견하여 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752년 700여명의 공적사절단으로 구성된 신라왕자 김태림의 방일이다. 셋째, 일본에서의 사무역은 신라상인들이 7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자이후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768년에 일본지배층이 다자이후의 관리들을 이용하여 신라 교관물(무역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기사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9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다자이후의 관리들과 호족들도 신라상인과 독자적으로 교역활동을 벌이게 된다. 넷째, 750년대 이후 신라인들이 다자이후로 끊임없이 건너오면서 유통시스템이 형성되었고 점차 신라상인들도 다자이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재일신라인'은 이후 '재당신라인' 한반도 남해안의 해상세력 등과 함께 9세기 초기에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동아시아 교역권의 핵심 멤버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8세기 중엽부터 사무역을 중심으로 한 교역권이 다자이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9세기 초기에 장보고와 같은 국제적인 해상 무역가도 출현하게 되었다.

결국 나라시대의 양국 간의 교역 형태는 신라 공적사절단의 공무역으로 시작되었다가 사절단을 수행한 중하급관리들의 사무역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라상인에 의한 직접적인 사무역으로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속일본기』
『類聚三代格』
『舊唐書』卷 一四九, 「歸崇敬傳」.
『입당구법순례행기』
- 木宮泰彥(1987), 『日華文化交流史』, 東京: 富山房.
鈴木靖民(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田村円澄(1990), 『大宰府探求』, 東京: 吉川弘文館.
森克己(1985), 『遣唐使』, 東京: 至文堂.
李成市(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正倉院の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東京: 青木書店.
김상기(1948), 「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대하여」, 『동방문화
교류사논고』, 서울: 을유문화사, 3-7쪽.
_____(1987), 「조공의 경제적 의의」, 『고대한중관계사의 연구』, 한국사연구
회편, 서울: 삼지원, 48-52쪽.
야마다 후미토(2017), 「新羅 聖德王代の 對日關係와 ‘王城國」, 『韓國古代史
研究』, 87집, 314-315쪽.
_____(2020), 「8세기 중반 羅日關係의 推移와 金泰廉 使節團의 渡
日」, 『大丘史學』, 138집, 33-34쪽.
윤선태(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게」(買新羅物解)-쇼
소인(正倉院) 소장 ‘첩포기」(貼布記)의 해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4집, 42-48쪽.

- 이병로(1996), 「고대일본열도의 '신라상인'에 대한 고찰」, 『日本學』, 1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_____ (1996), 「8세기 일본의 외교와 교역: 라일관계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4輯, 日本歷史研究會.
- _____ (1998), 「〈속일본기〉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신라·발해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4집,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04), 「신라의 '견일본사' 파견 중지 에 관한 일고찰-나라시대 중·후기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59집, 한국일본학회.
- _____ (2004), 「일본측 사료로 본 9세기의 한일관계-신라인 來着기사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25집, 일본어문학연구회.
- _____ (2005), 「장보고와 혼야노 미야다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 『大丘史學』, 79집, 10-11쪽.
- _____ (2011), 「혜안 초기의 동아시아세계의 교섭과 현황-장보고와 엔닌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53집, 일본어문학회.
- 이병로·김용일(2006), 「752년 신라사 김태림의 방일 목적에 관한 연구」, 『日本語文學』, 34집.
- 石井政敏(198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東京: 吉川弘文館, pp. 280-281, p. 303.
- 井上秀雄(1969), 「三國文化の影響」, 『日本と朝鮮の二千年』, 東京: 太平出版社, p. 78.
- 遠藤元男(1975), 「貞觀期の日羅關係について」, 『駿大史學』, 19號, p. 11.
- 倉住靖彦(1977), 「大宰府-遠の朝廷」, 『古代の地方史』1, 西海編, 東京: 朝倉書店, p. 263.
- _____ (1987), 「大宰府の成立」, 古代を考えるシリーズ 『大宰府』, 東京: 吉川弘文館, p. 66.
- 鈴木靖民(1985), 「對新羅關係と遣唐使」,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pp. 230-231.
- 東野治之(1977), 「正倉院氈の墨書と新羅の對外交易」, 『正倉院文書と木簡の

研究』, 東京: 塙書房, pp. 353 - 355.

浜田耕作(1983), 「新羅中下代の内政と對日外交」, 『學習院史學』, 21.

松本新八郎(1961), 「東アジア史上の日本と朝鮮」, 『世界歴史』, 6, 東京: 築
摩書房, pp. 281-284.

森克己(1975), 「慈覺大師と新羅人」, 『續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
會, pp. 180-181.

李成市(1982), 「正倉院寶物氎貼布記を通じて見た八世紀の日羅關係」, 『朝鮮
史研究會會報』, 67號, p. 10.

李炳魯(1993), 「九世紀初期における環シナ海貿易圏の‘考察-張保臯と對日交
易を中心として-」, 『神戸大學史學年報』, 8.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 Trade and Private Trade of Japan and Silla in the 8th Century

Lee, byung ro

The 『SYOKUNIHONKI(續日本紀)』,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the Nara era in the 8th century, shows that more exchanges were made between Silla and Japan in this period than any other era. Most of the exchanges were unilateral from Silla to Japan. The two countries ha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external factors for a while in the early 8th century, but since the 830s, when external factors disappeared, they had returned each other's public delegations and showed sharp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ronta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a time when Silla people actively developed trade in Japan. Of cour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was because the royal family and nobles, who were Japanese ruling leaders at that time, desperately needed Silla's exchanging trade goods.

Therefore,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8th century (Nara er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Japanese ruling class in the Nara period recognized Silla and Balhae as countries of the prosperity. However, this was because the Japanese ruling class was caught up in the ideology of the statute law and they embellished for their benefit, so the Silla ruling class did not accept it. Rather,

Taeryeom Kim's public delegation in 752 conducted diplomacy with Japan an example of a higher country than Japan.

Second, the Silla ruling class started to develop public trade by dispatching a large-scale public delegation from the mid 730s, based on the tribute trade system, which was learned from the (China) Tang dynasty. The typical example was the 700 people-consisted public delegation visit of Silla prince, Taeryeom Kim, in 752.

Third, it is considered that the private trade in Japan actually began from 750s, when Silla merchants crossed over to Dazaifu. An article, in which the Japanese ruling class purchased a large amount of Silla exchanging trade items by using the officials of Dazaifu, tells it well. In the 9th century, the officials and barons of Dazaihu engaged in trade activities independently with Silla merchants.

Fourth, since the 750s, the distribution system had been formed as Silla people constantly crossed over to Dazaihu. And Silla merchants had gradually resided in Dazaihu. These 'immigrated Silla people' became core members of the huge East-Asian trade area centered on Bogo Jang in the early 9th century along with the maritime forces of the 'immigrated (China) Tang people' on the sout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s such, since the trade area centered on the private trade were formed around Dazaihu from the mid 8th century, such an international maritime trader as Bogo Jang appeared in the early 9th century.

Key words: Unified Silla era, Nara era, Korea-Japan exchange history, public trade, private trade, Silla merchants

논문접수일: 2020년 5월 7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5일

